

진흥회 활동

광주첨단전자전, 첨단기술 펼쳐 보이며 대 성황리에 폐막



본회(회장 : 구자학)의 주관으로 지난 6월 5일 「미래의 꿈은 첨단 기술로」라는 주제로 성황리에 막이 오른 광주첨단전자전이 광주비엔날레 전시관에서 6일간의 일정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미국·일본·독일·프랑스·네덜란드·스위스·캐나다·영국 등 총 9개국 60개사의 우수 전자업체들이 국제 경쟁력을 갖춘 차세대 정보통신기기, 정보화를 촉진하는 최첨단 멀티미디어 제품, 기술혁신 첨단 영상기기 제품, 시장개방에 대응한 한국형 가전제품, 국산화에 성공한 중소기업 제품 등으로 열린 경연을 벌인 결과 11만여명의 관람객이 우리나라 전자·정보산업의 발전상을 한 눈에 보기 위해 연일 대성황을 이룬 가운데 6월 10일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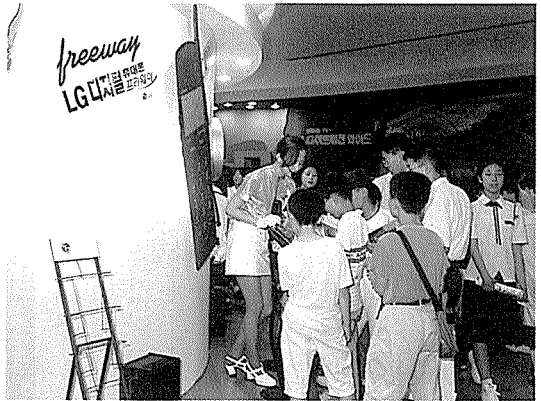
통산부·광주광역시가 주최한 이번 광주첨단전

자전은 광주를 중심으로 인근 목포·순천·여수 등 호남지역의 업계 관계자, 전문가, 일반 소비자 및 학생들이 2002년 월드컵 유치 축제분위기와 맞물려 당초 예상했던 11만여명의 관람객이 대거 몰려 광주에서 최대 첨단 전자·정보기기 전문 전시회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 주었다.

그동안 서울에 집중되어 있던 전자전이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에서 국내외의 첨단 정보통신 및 생활제품을 한눈에 볼 수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 전자·정보산업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지역간 교류촉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첨단기술에 대한 학생들의 교육기회 제공, 우수 제품 보급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등 지방의 정보화, 세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행사에는 광주광역시를 미래 첨단 정보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 광주광역시장, 광주광역시의회 의장, 광주광역시 교육감, 광주 상공회의소 회장, 광주광역시 경찰청장 등이 참관하여 직접 최첨단 제품들을 작동해 보며 우리 전자·정보산업에 대한 깊은 관심을 표명하기도 했다.



개인 및 생활 정보화의 조기 정착과 지방 전자·정보산업의 도약 및 선진국들의 시장개방 압력 가속화에 대비한 국내 시장 기반 구축을 목적으로한 이번 전자전은 선진화된 우리나라 전자·정보산업의 위상을 지방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기회로 광주광역시 등 호남지역의 세계화에 큰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내 전자·정보산업의 활력과 성장이 예견되면서 우리의 기술력과 품질, 서구화된 세련된 디자인 등으로 일반 시민에게 큰 관심을 보였다.

우리나라 전자·정보산업의 세계적인 수준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이번 전자전은 부대행사로 영상통신기술 세미나 및 표준 기어드 모터 설명회 등이 개최 됐으며 특히, 21세기를 대비한 광주·전남지역 산업발전을 위한 산·학·관 합동 심포지움에서는 광주·전남지역 전자관련 산업체의 육성과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산·학·관 합동 연구체제를 구축하고 기초연구에서 벗어나 제품생산 단계까지 이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상호유기적인 관계의 확립이 시급한 것으로 제기 되고 산·학·연 기술개발의 적극 추진과 기업의 경쟁력 강화 노력, 정부의 지원이 결합된다면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첨단 정보도시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한편 업계 및 관람객이 꼽고 있는 이번 광주첨단전자전의 최대 특징은 개인 및 생활정보화에 큰 기여를 할 첨단 제품들의 대거 출품과 이 제품들을 관람객들이 직접 사용하여 시연해 볼 수

있는 입체적인 전시 체계 및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산업을 이끌어 갈 학생들의 대거 참관 등을 들 수 있다.

구체적으로 각광을 받은 주요 제품들을 보면 첫째, 정보서비스 및 네트워크 제품으로 64비트급 CD롬 게임기와 유아용 학습기로 유아에서부터 성인까지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가정용 멀티미디어 플레이어를 들 수 있으며 일반 전화회선을 이용하는 PSTN용 PC화상회의 시스템, PC 통신을 이용한 인터넷 서비스 등 정보서비스와 통신 네트워크를 한눈에 이해 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었다.

또한 국내 최초로 개발 전시된 10배속 CD롬을 비롯 팬티엄급 멀티미디어 PC, 하드디스크 및 플로피 디스크 드라이브 등도 주목을 받았으며 CD몇장이면 TV시청, 어학실습, 게임, 영화감상 등 다양한 기능을 구사할 수 있는 CD-I 제품들이 눈길을 끌었다.

둘째, 통신기기 분야에서는 CDMA 단말기에 대한 시연회를 실시해 관람객들의 이해를 높이는 동시에 첨단 기술력을 유감없이 보여 주었다.

또한 6월말에 개발 완료하는 CT-2 단말기 핸드폰, 개인정보단말기(PDA) 등이 큰 인기를 끌었다.

셋째, 영상·음향기기로는 다음달 무궁화 위성방송에 대비한 무궁화 위성방송 수신 TV, 43인치 및 52인치 프로젝션 TV, 32인치 및 48인치 와이드 TV 그리고 게임을 즐길 수 있는 TV 등 멀티미디어 환경에 대비한 TV가 관람객들의 시

선을 집중시켰다.

또 PC통신 TV의 실연을 통해 TV로도 편리하게 PC통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으며 미니 콤포넌트, 마이마이 카세트 등 오디오 기기도 함께 선보여 학생들로 부터 많은 인기를 얻었다. 또한 HDTV, LCD프로젝터, 디지털 버서타일 디스크(DVD) 등을 안방식 극장으로 꾸며 영상 디스플레이를 관람객이 한눈에 실감할 수 있도록 한데 큰 주목을 집중시켰다.

넷째, 한국형 신가전 제품은 가정에서의 편리성을 향상시킨 제품들인 저장공간과 냉동사이클을 분리시킨 분리형 냉장고, 소비자들이 원하는 형태로 주문 받아 생산하는 주문형 냉장고, 분해조립과정이 필요없이 즉각 청소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멀티 청소기 등 각종 가정용 전자 제품들이 산뜻한 디자인으로 우리의 신체에 맞게 대거 출품되어 가정 주부들의 관심을 집중 시켰다.

다섯째, 광주지역에서도 (주)종합시스템 등 11개사가 이번 전자전에 참여 기계의 센서가 공정별로 자동감지 부동시간 리스트나 불량률, 재고량 등을 컴퓨터에 체크해 주는 그래픽 모니터링 시스템, 기계, 건축, 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쉽게 CAD/CAM을 활용할 수 있는 S/W, 또 웹서비스 검색프로그램인 네트스케이프가 내장된 나우로 윈 포커스 2.0을 통해 각종 통신 서비스는 물론 훨씬 쉽고 편리한 인터넷 이용 환경을 제공해 주는 PC통신에도 광주·전남지역 학생들에게 큰 주목을 끌었다. 이렇듯 미래 첨단 도시로 부상하는 광주지역 업체들의 관심도 이번 전자전에서의 역할은 매우 컸다.

또 하나의 두드러진 특징은 우리나라 경제·산업을 이끌어 갈 학생들의 대거 참관이다.

미래 세계를 꿈꿀 수 있는 다양한 행사들을 통해 초등학생부터 대학생에 이르기까지 많은 학생들이 최첨단 분야에 참여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고 작동해 볼 수 있는 교육의 장으로써 수백명씩 단체로 매일 전시장을 찾아 각종 제품들을 세밀히 살피고 메모하는 진지한 모습은 우

리나라의 밝은 미래를 엿보게 해 주었다.

특히, 어느 고등학교 교사는 학생들에게 최첨단 제품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교육의 장으로써 산업전시회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고마움을 표하고 앞으로도 매년 광주광역시에 개최하기를 바라는 의사를 본회에 제시하는 경우도 볼 수 있었다.

또한 이번 광주첨단전자전이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던 것은 광주광역시의 전폭적인 행정지원이 있었기 때문이다. 인산인해를 이룬 관람객들의 편의와 안전을 위한 교통, 119구급대 상주대기, 복구청 부너 봉사회, 한국통신의 친절 서비스 등은 이번 행사가 질서 정연하고 안전성 있는 행사로 치를 수 있는 행정지원이 있었기 때문이다.

통상산업부 장관, 전자업계 대표 간담회



본회는 지난 5월 20일 대한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통상산업부 박재운장관을 비롯 본회 구자학 회장, 김광호 삼성전자 부회장, 김영준 LG전자 부사장, 양재열 대우전자 사장, 김주용 현대전자 사장, 황인길 아남산업 사장 등 업계대표 18명이 참석,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정부의 수출지원책과 기업활동

상의 애로사항 등을 논의했다.

업계 대표들은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특소세제의 조기폐지와 수입선 다변화제의 단계적 폐지 및 원산지 확인제도 개선 방안의 재검토 그리고 해외투자 자기자금 의무비율 폐지 등을 집중 거론했다.

이에 대해 박재운 통산부장은 해외투자 자기자금 의무비율 폐지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 재경원과 협의하겠다고 밝혔으나 수입선 다변화제의 단계적 폐지에 대해서는 구체적 언급이 없었고 수도권 지역의 공장·신증설 문제와 가전에 대한 특소세 폐지문제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일 투자유치단 활동성과 커

본회와 통상산업부 등으로 구성된 민관합동 대일 투자유치단이 4박 5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다.

지난 6월 4일 파견된 민관합동 투자유치단은 오사카와 동경에서 각각 일본 기업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환경 설명회와 산업협력 상담회 등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 지난해 보다 배가 넘는 총 248건의 투자상담 실적을 거두었으며 특히 지난 5~7일 가진 투자환경 설명회에서는 일본 기업인 400여명이 대거 참석 상황을 이루었다.

또 상담내용에 있어서도 합작투자와 기술제휴, 무역분야의 협력 등으로 확대되는 결실을 거두기도 했다는 것. 실제로 우리나라의 동광정밀과 기린전자는 일본의 아사히산업·국제전기와 각각 제조수출 및 제조기술제휴를 맺기도 했다.

정부는 이같은 상담결과가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각종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고 상담연계작업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방침이다.

국제 특허 세미나 개최



본회가 지난 5월 23일 전경련회관에서 개최한 국제특허세미나에서 로버트 아체스 美특허전문변호사는 「멀티미디어 및 소프트웨어기술의 특허 현황 및 대응방안」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소프트웨어특허는 제품의 실용가치에 의해 결정되며 기능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소프트웨어는 특허를 받을 수 있지만 음악·사진·문학·데이터베이스 등 비기능적인 것은 특허범주로 보지 않고 있는 것이 최근 미국 특허법의 지침」이라고 소개하고 「소프트웨어 특허를 내기 위해서는 제품의 기능성을 매우 「이례적」으로 강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매체에 내장된 소프트웨어는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을 땐 특허보호가 어렵다」고 지적하고 「특허출원인은 소프트웨어 발명이 특별한 기계나 구조에 어떻게 적용, 작동되는지를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적으로 상세히 기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우찬호 美 특허전문변호사는 최근의 美 특허청의 움직임에 대해 「지난 95년 가이드라인(지침)을 발표함으로써 소프트웨어 발명에 대한 인식을 크게 바꾸어 놓았다」고 소개하고 「최근의 법원판결도 소프트웨어에 대한 특허를 인정해야 한

다는 쪽으로 나오고 있다」며 소프트웨어 특허에 대한 업계의 관심을 촉구했다.

모니터 수출분과 위원회 개최

본회의 컴퓨터 산업협의회 산하 모니터 수출분과위원회가 '96. 5. 31 본회 대회의실에서 LG전자, 삼성전자 등 4개사 참석한 가운데 최근의 모니터 수출동향에 대해서 상호정보교환·해외시장동향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특히 이번회의에서는 CDT구입에 따른 문제점과 조속한 시일내에 17" 조속히 국산화 할 필요가 있음을 인식하고 3/4분기 수출전망에 대해 논의하였다.

제9회 전자산업인 노사화합친선 등반대회 개최

전자산업의 화합과 단결을 위한 「제9회 전자산업인 노사화합 친선등반대회」가 지난 18~19일 이틀간 경기도 포천군 소재 명성산에서 전자관련업체 23개사 51개팀 3백여명의 선수와 임원이 참가한 가운데 성대히 개최됐다.

한국전자산업진흥회가 주최하고 통상산업부와 전자신문사 등이 후원한 가운데 남성부·여성부·혼성부 등 3개부문으로 나눠 치러진 이번 등반대회에서는 삼영전자공업(주) 여성팀이 통상산업부 장관상인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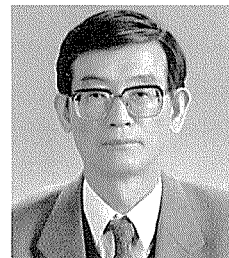
각부문 1위에게 주어지는 한국전자산업진흥회 장상은 삼성전자 남성팀, 삼영전자공업 혼성팀, 세진전자 여성팀에게 각각 돌아갔다.

신규 회원 가입을 환영합니다

모토로라 반도체 통신(주)

대표이사 : 리처드 하임리치
주소 :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41-2 금하빌딩
전화번호 : 3440-7001
F A X : 3440-7009
설립일자 : 1992. 8. 14
종업원수 : 284명
주생산품목 : 통신장비, 전자기기,
프로그램개발, 장비수선

한해 전자 주식회사



대표이사 : 이 호 진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송인동 280
진선B/D 3층
전화번호 : 02)237-9522
F A X : 02)237-2578
설립일자 : 1971. 11. 1
자본금 : 50억원
종업원수 : 60명
주생산품목 : ANT류